

# 탄산음료 자판기 규제, 어떻게 이루어지나



최근 식품시장의 시대적 화두는 '웰빙'이다. 소비자들은 몸에 좋다는 '웰빙' 제품에 열광을 하며 건강을 챙기는 시대이다. 이런 가운데 탄산음료 시장은 점점 위축되고 있다. 탄산음료 업체들은 해마다 적자가 늘어나고 있고, 소비자들의 선호도 역시 날로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이제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심지어 초·중·고 학교에 있어서는 청소년 건강을 고려, 판매를 아예 규제하려는 입법까지 추진되고 있다.

초·중·고내 탄산음료 판매가 금지되면 유통수단인 자판기나 매점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자판기 산업계는 초·중·고내 음료자판기 생존전략을 다시 짜야할 상황이다. 이번 호 정책초점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탄산음료자판기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자판기 산업계 어떠한 대책마련을 진행해야 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 식약청, 올 2월 탄산음료자판기 규제 포함한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 발표

식약청은 올 2월 27일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학교 주변 200m를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학교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탄산음료나 지방이 많이 든 과자나 패스트 푸드를 팔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와 부모 등이 영양성분 함량정도에 따라 빨강(고함량), 노랑(중등 함량), 초록(저함량) 등의 색깔로 표시되는 영양성분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지방, 당이 많이 든 과자, 패스트 푸드 광고가 제한된다.

식약청이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은 학교주변지역의 비위생적인 식품 판매, 어린이 단체급식의 식중독 사고와 함께 고열량, 고지방 식품의 과잉 섭취 등으로 인해 비만 어린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등 어린

이 먹거리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과자, 패스트푸드 등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 건강위해 성분이나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과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자녀를 둔 부모의 54%가 어린이 먹거리가 안전치 못하다고 인식

※ 어린이 비만률이 '98년 05년간 '7년 동안에 1.5배 증가(미국의 경우 '80년 '00년간 20년 동안에 2배 증가)  
식약청은 이러한 로드맵에 따라 2010년까지 건강저해 식품의 유통·판매·근절,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확보, 단체급식의 위생 및 품질 개선, 올바른 식품 선택권 보장, 안전관리 제도적 기반 구축 등 5개 분야별로 10개 핵심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탄산음료자판기 규제 입법 추진 현황



식약청이 식품안전관리 구역을 지정 관리하는 것은 학교 안팎 식품관리업소, 자판기 등을 통해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조장하는 식품 등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매점, 자판기가 거의 없으나 중고등학교에는 꽤 많은 자판기들이 설치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학교주변지역(200m)을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하여 건강저해 기호식품의 규제를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학교 내 매점, 자판기 등에서 탄산음료와 과지방 과자, 패스트 푸드 등 판매를 금지시킬 계획이다.

현재 교육부는 중고등학교의 구내매점, 자판기에서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조리식품 판매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면규제 계획이 입법화되면 탄산음료를 취급하는 자판기는 교내에서 받을 불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

정부는 탄산음료자판기 규제 등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을 포함시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법은 구체적인 지침 등을 담아 확정되게 되는 데 빠르면 내년 정도 최종 확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 법이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정식시행이 되게 된다. 이럴 경우 초중고에 설치된 음료자판기에서는 탄산음료를 판매하지 못하고 건강음료 위주로 칼럼을 재배치하는 게 불가피해 진다.

이러한 탄산음료자판기 규제는 세계적인 동향이다. 구미선진국들도 탄산음료자판기 규제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가고 있다. 비만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규제대책 마련 작업을 진행해 와 지역별로는 규제를 시행하는 곳도 많다. 유럽의 경우도 최근 청소년 건강을 위해 탄산음료자판기를 규제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탄산음료자판기 규제는 세계적인 동향이다. 구미선진국들도 탄산음료자판기 규제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가고 있다. 비만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규제대책 마련 작업을 진행해 와 지역별로는 규제를 시행하는 곳도 많다. 유럽의 경우도 최근 청소년 건강을 위해 탄산음료자판기를 규제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음료업체, 학교 내 탄산음료 판매 제한 움직임에 "무탄산 과즙음료로 청소년 공략"



음료시장의 웰빙 동향에 따라 탄산음료를 취급하는 음료업체들은 매출 타격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코카콜라'를 판매하는 한국코카콜라보틀링은 2004년부터 적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칠성사이다', '뽕시콜라'를 취급하는 롯데칠성도 탄산음료 매출이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료업체 있어 탄산음료는 이제 "뜨는 시장"이 아닌 "지는 시장"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청소년 건강을 위해 학교 내 탄산음료 판매가 제한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음료업체는 긴장하고 있다. 탄산음료의 부진을 만회하게 해 줄 대체음료 출시를 통해 청소년층을 잡기 위한 노력들이 활발해 지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무탄산이면서 4가지 과일의 산뜻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과실음료 '델몬트 스쿼즈'를 선보였다. 오렌지, 포도, 파인애플, 사과 등 4가지 맛으로 출시된 델몬트 스쿼즈는 아기자기한 서체와 과일 이미지 등 청소년들이 호감을 가질만한 패키지에 가격대도 저렴한 500원(240ml 캔)으로 책정했다.

롯데칠성은 청소년들이 많은 학교 및 청소년 수련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에 제품을 집중적으로 입점시켜 소비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해태음료는 지난 2005년 내놓은 무탄산 과즙음료 '레몬에이드'와 올 들어 후속 제품으로 선보인 '자몽에이드', 냉장 제품인 '썬키스트 레몬에이드 완전상큼'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들 제품은 비타민C와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며 탄산이 없는 저자극 음료다.

㈜일화는 무탄산 음료 신제품인 '스위시' 레몬맛·복숭아맛 2종을 새로 출시, 청소년들의 마음잡기에 나섰다. 이 제품은 '스위시'(Sweet & Fresh)라는 제품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달콤한 복숭아와 상큼한 레몬 과즙 농축액을 10% 함유, 기존 에이드 제품보다 풍부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며 비타민C과 칼슘이 영양소 기준치 대비 100% 함유돼 있다.

### 자판기 산업계 대책은

현재로서 볼 때 탄산음료자판기 규제 입법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입법 이루지 않은 최근에도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는 지자체와 학교도 연이어 생겨나고 있다. 지난 5월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청소년 유통인구가 가장 많은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센터도 이에 동참했다. 청소년 문화센터는 담배, 탄산음료, 폭력, 등 청소년 유해요소를 차단하여 건강한 수련 시설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그린존(green zone) 선포식'을 가졌다. 이같은 취지를 살려 '탄산음료제로 지역' 선포하기 위해 이미 자판기에서 콜라와 사이다 등의 탄산음료를 뺐다. 또 센터 내 매점 2곳에서도 탄산음료를 팔지 않도록 외부 임대업자와 계약을 맺었다. 이러한 자율규제 동향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 점에 미루어 볼 때 관련업체에서 아무리 반대를 해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탄산음료 규제의 큰 흐름을 막기란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이런 동향이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불리한 요인이다. 또 관련 입법을 저지하기 힘든 요인 중의 하나는 탄산음료자판기 규제가 운영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의



큰 문제가 아니라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 차선의 선택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탄산음료를 다른 대체음료로 바꾸어서 영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자판기 운영권까지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이런 점은 결국 운영자들이 새

로운 판매전략을 강구하면 되지 않느냐는 논리를 강화하게 만든다. 따라서 업체가 생존권을 운운하며 입법을 저지할 수 있는 명분은 자연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점을 인정하고 다른 반대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다. 그 방안중의 하나가 탄산음료가 청소년 비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이다. 비만의 천국인 미국에서도 학교 자판기를 통한 청소년들의 청량음료 음용이 비만을 조장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관련 업체들이 적극 주장하며 규제를 피해가려 하고 있다.

미국도 이렇 지경인데 탄산음료 음용량이 더욱 적은 우리나라도 이 문제는 정면으로 거론하며 반대논리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패스트푸드 섭취량에 구미에 비해 낮은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그렇게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학교 내 음료자판기가 청소년 비만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마련할 필요성도 있다. 앉아서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기 보다는 이런 반대논리라도 적극 주장한다면 규제의 수위를 낮출 수도 있을 것이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초중고의 탄산음료 규제라는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역전의 전략'을 강구할 필요성이 크다. 앞으로 초·중·고에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건강지향의 식품과 음료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단순히 본다면 외부적으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없는 건강지향 내용상품을 적용 판매하면 되는 일이다.



앞서 음료업체의 동향을 살펴봤듯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음료가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어 앞으로 그 동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냉음료자판기의 경우 이런 음료 위주로 칼럼을 재배치하며 운영 전략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건강지향이면서도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끄는 내용상품들이 많이 개발이 된다면 탄산음료 규제에 따른 매출악화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 다른 시장 대응 전략은 멀티자판기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멀티자판기야말로 탄산음료자판기 규제에 따른 가장 큰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 다양한 내용물을 취급할 수 있는 멀티자판기의 장점을 살려 건강지향의 다양한 음료와 식품을 판매하는 사업모델을 적극 도입해 가야 한다. 예를 들어 다양한 유제품, 과일 등을 판매하는 자판기로 특화를 한다면 오히려 학교 측이 적극적으로 설치를 장려할 수도 있다. 청소년 건강을 위

해 탄산음료자판기가 규제를 받는다면 건강을 증진하는 내용상품을 취급하는 자판기로의 변신은 '위기를 기회화'하는 현명한 전략이다.

멀티자판기 자체가 매점을 대체하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 학교 내 매점들은 탄산음료와 과지방 과자, 패스트 푸드 규제에 따라 수익성 악화가 심화된다면 아예 다양한 내용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멀티자판기로 대체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매점의 운영효율 저하가 멀티자판기에 있어서는 호재가 되는 셈이다. 얼마든지 멀티자판기가 무인 매점 역할을 하는 상황들도 예측해 볼 수 있다. 시장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자가 성공에 이를 수 있다. 자판기 분야의 관련 업체들도 현재의 탄산음료자판기 규제 동향에 넋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시점이다.

### 서울 시내 중학교, 자판기는 7대에 불과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상임대표 이덕승)는 2006년 11월 1일(수)부터 30일(목)까지 30일간 서울시 25개구에서 한 구당 3개의 중학교를 선정하여 총 48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중학교 내 매점 및 자판기 판매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비만과 영양불균형의 원인이 되는 자판기의 중학교 내 설치 및 운영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조사 결과 서울시 중학교는 매점 설치가 일반화 되어 있어 조사대상 48개 중학교 모두가 매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매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아이스크림류(35개교), 생수류(21개교)와 탄산음료(12개교), 햄버거, 소세지, 컵라면 등으로 인스턴트 음식과 탄산음료 위주이며 생과일이나 생과일을 직접 갈아주는 주스류를 판매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은 41개교가 빵 종류를 꼽았고 20개 학교에서 우유가 가장 많이 판매되는 품목이며 그밖에 소시지, 젤리, 햄버거, 과자류, 캔디로 등을 꼽았다.

매점 운영방식은 임대를 주어 운영하는 방식이 33개교로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학교(15개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매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방법은 학교에서 직접 결정하는 학교가 21개교, 매점주인이 결정한 후 학교의 허락을 받는 학교가 9개교, 매점주인이 직접 결정하는 학교가 8개교,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하는 경우도 5개교이다. 매점운영은 임대를 주어 운영하더라도 판매하는 제품은 학교에서 결정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판기의 경우는 48개 중학교 중에서 6개 학교에 7대의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다. 자판기가 설치된 장소는 교무실내에 설치된 경우 3곳, 매점 내 2곳, 교실근처 1곳, 기타 1곳으로 나타났다. 자판기에서 판매하는 음료는 우유, 울무차, 게토레이, 포카리스웨트, 식혜, 봉봉 등 청량음료 등이며 교무실이나 교직원 식당에만 커피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중학교 자판기에의 경우는 탄산음료를 판매함으로써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아예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식약청 발표,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 요약

담당부서 : 식품안전정책팀 / 영양평가팀

- 지방, 당 등이 많이 든 과자, 패스트푸드 광고 · 판매제한된다 -

○ 식약청은 학교주변지역의 비위생적인 식품 판매, 어린이 단체급식의 식중독 사고와 함께 고열량, 고지방 식품의 과잉 섭취 등으로 인해 비만 어린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등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 과자, 패스트푸드 등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 건강위해 성분이나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과 로드맵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자녀를 둔 부모의 54%가 어린이 먹거리가 안전치 못하다고 인식

※ 어린이 비만률이 '98년~'05년간 '7년 동안에 1.5배 증가(미국의 경우 '80년~'00년간 20년 동안에 2배 증가)

○ 식약청은 이러한 로드맵에 따라 2010년까지 건강저해 식품의 유통 · 근절,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확보, 단체급식의 위생 및 품질 개선, 올바른 식품 선택권 보장, 안전관리 제도적 기반 구축 등 5개 분야별로 10개 핵심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부모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학교주변의 식품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주변 200m를 식품안전보호구역 (Green food zone)으로 지정하여

- 학교구내의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탄산음료와 지방이 많이 든 과자, 패스트푸드 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 2010년부터는 과잉섭취가 우려되는 성분의 기준치를 강화하여 판매금지 품목을 확대하며

- 학교주변 200m지역에 대해서는 문방구, 소형마트 등의 비위생적인 식품판매 시설을 개선하도록 지원, 계도하고 학부모 등을 어린이 먹거리 전담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하여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할 계획이다.

○ 어린이의 경우 광고나 장난감과 같은 식품에 끼워 파는 상품에 현혹되어 당이나 지방 등이 많이 든 과자,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등의 과잉 섭취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 2008년부터 미끼상품이 들어있는 과자, 음료, 패스트푸드 등의 어린이 기호식품은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한 광고를 금지하고 2010년부터는 적정한 기준치를 초과한 당, 지방 등의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의 경우 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9시 이전에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 어린이 프로그램의 식품광고가 37% 차지하여 일반프로그램의 20% 2배정도 높은 수준





- 아직 영양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는 패스트푸드 등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모델을 개발 보급하고
  - 2010년부터는 대형매장을 갖추거나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는 외식업체에 대해서는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 음료 등에 들어 있는 트랜스지방, 당,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이나 첨가물 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 트랜스지방의 경우 금년 12월부터 함량 표시가 의무화되므로 식품업체들이 스스로 함량을 줄일 수 있도록 저감화 기술지원 등을 통해 2010년까지 1% 이하 수준으로 낮추고
  - 당, 나트륨의 사용량도 줄여서 섭취 수준을 현재보다 10%이상 줄여 나갈 계획이며
  - 식품첨가물은 금년 중에 어린이 다소비식품에는 적색 2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2008년까지 보존료, 산화방지제, 인공감미료 등의 섭취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 영유아나 청소년기의 영양소 결핍이나 과잉섭취는 신체기능 성장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어린이들의 영양성분 섭취량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영양강화기준을 마련하고
  - 영유아용식품의 제조가공과정에서 영양과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필수 영양성분 등의 기준 규격을 개선하고 제조공정별 안전관리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영양사와 위생 전문가를 배치하여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 단체급식 시설 등의 급식재료와 조리과정 등의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되,
  - 우선 지자체의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각 시·도별로 시범 운영을 한 후에 확대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식품안전과 영양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이 중요하므로 교육부와 협조하여 초등학교에서 식품안전과 영양에 대한 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 부모나 어린이들이 영양이 골고루 갖추어진 제품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양성분 함량을 색깔로 알려주는 신호등 표시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 영국은 총지방, 포화지방, 설탕, 소금, 함유량에 대한 정보를 빨강(고함량), 노랑(중등함량), 파랑(저함량)으로 표시
  
- 식약청은 이러한 대책들을 제도화하기 위해 특별법(가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 어린이 먹거리 안전과 영양수준을 정기적으로 조사 평가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키로 하겠다고 밝혔다.
  - ※ 보다 상세한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찾으시면 됩니다.